



최근 4년간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여성건강 관련 연구의 동향(2013~2017년)

이영진¹ · 김서연¹ · 강샘이¹ · 강유정¹ · 김란¹ · 정희연¹ · 김혜원²서울대학교 간호대학¹,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연구소²

Trend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from 2013 to 2017

Lee, Young Jin¹ · Kim, Seo Yun¹ · Kang, Saem Yi¹ · Kang, Yoo Jeong¹ · Jin, Lan¹ · Jung, Hee Yoen¹ · Kim, Hae Won²¹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²College of Nursing ·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o analyze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from 2013 to 2017 to determine the latest research trends and understand how 2013 Korea Women's Health Statistics were reflected in journal articles. **Methods:** A total of 130 studies were analyzed. Research design, types of research, research framework, research subjects, characteristics of quantitative research,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research, and keywords were analyzed using a structured analysis format. **Result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accounted for 83.8% and 13% of these 130 studies analyzed, respectively. Non-experimental and experimental research accounted for 70.7% and 13.1% of these studies, respectively. The most frequent study subjects were childbearing women (62.8%), including college students, mothers, and adults. A total of 69.1% of non-experimental research and 88.2% of experimental research used convenience sampling. Questionnaires were most frequently used for data collection. The most frequent keyword domain involved health-related concepts (41%) among nine domains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keyword was "wome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further experimental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Also, adolescent and the elderly women should be focused on as subjects in future studies based on results of 2013 Korean Women's Health Statistics.

Key Words: Publishing, Research, Women's health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임신과 출산이 여성건강에 대한 고유한 연구 주제로 여겨졌으나 성평등에 대한 사회 인식의 진전으로 고학력

여성과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이 많아짐으로 인해 출산율 저하, 만혼 및 비혼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1,2]. 이로써 성(gender)건강에 기초한 여성건강 관점에서 여성건강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3,4]. 이에 따라 여성건강에 대한 연구의 초점이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요어: 출판, 연구, 여성건강**Corresponding author:** Kim, Seo Yun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03080, Korea.
Tel: +82-2-740-8465, Fax: +82-2-740-8465, E-mail: seo3915@snu.ac.kr

Received: Feb 1, 2018 / Revised: Mar 5, 2018 / Accepted: Mar 6,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여성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 건강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규모 통계지표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내 여성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3년에 통계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약 14개의 국가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여성 건강통계를 발표하였다[5]. 이는 2003년 이후 처음 수행된 조사로 최근 10년 동안의 여성건강의 변화와 국내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여성건강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여성 건강통계에 의해 드러난 국내 여성의 주요 건강문제는 청소년 성관계 경험의 증가, 청소년의 낮은 피임과 성교육의 부족과 관련된 청소년의 성 건강 문제, 여성 대상의 성폭력 증가, 출산력 감소, 고령출산의 증가로 인한 모성 사망비의 증가, 여성의 우울증 증가와 높은 스트레스 인지, 여성의 알코올 섭취 및 흡연의 증가, 여성의 신체활동 부족 등이다[5]. 이는 임신 출산 중심의 가족중심 관점에서의 모성건강에서 벗어나 젠더 중심의 여성건강 실태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호실무와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 간호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국내 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의 여성 건강문제를 반영하여 실무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문적이며 혁신적인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간호의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간호중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는 1994년 여성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되어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1995년부터 여성건강간호학회지(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KJWHN)를 공식 학회지로 출간한 이후, 2009년까지 학술지의 내용과 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논문 분석을 수행하였다[6,7]. 이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게재된 유사실험연구설계를 국제 표준화된 보고지침인 TREND에 근거하여 평가하였고[8], 2011년부터 2013까지 게재된 조사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STROBE에 근거하여 평가함으로써 여성건강간호학회지가 국내 여성건강 연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9].

여성을 돌보고 여성건강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간호대상자인 여성의 건강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2007년부터 2009년에 게재된 논문과 비교했을 때 논문의 유형, 연구의 이론적 기틀의 사용, 연구대상자, 연구방법, 주요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최근 질적 연구의 대상자별 연구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국여성 건강통계 결과가 현

재 여성건강 관련 연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여성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최근 4년간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여성건강의 연구동향의 변화를 파악하고 한국여성 건강통계의 결과가 현재 여성건강연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 여성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여성건강연구의 연구방법, 게재된 논문의 유형 및 연구의 이론적 기틀의 유무를 분석한다.
-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여성건강연구의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한다.
-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여성건강연구의 양적 연구의 특성을 분석한다.
-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여성건강연구의 질적 연구의 특성을 분석한다.
-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여성건강연구의 주요어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최근 4년간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총 130편을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분석틀 및 측정변수

본 논문분석은 연구방법, 게재된 논문의 유형 및 연구의 이론적 기틀 유무, 연구대상자의 특성, 양적 연구의 특성, 질적 연구의 특성과 주요어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논문분석에서 사용한 분석틀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여성건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연구[6,7]와 대한간호학회지의 논문분석 기준[8]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분석도구의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방법에서 연구설계의 세부 분류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연구방법, Q방법으로 구분하였다. Q방법론은 연구의 특성에 따라 별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10]. 논문의 유형은 학위논문과 연구비수혜 논문, 비학위 논문이면서 연구비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및 개념적 기틀의 종류를 보고자 하였으나 이론적 및 개념적 기틀을 적용한 논문에서 각기 다양한 이론을 사용하고 있어 이론적 및 개념적 기틀 유무로만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총 130편의 연구 중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117편의 연구대상자를 분석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연구 8편, 개념분석 연구 2편, 질 평가 연구 2편, 전자간호기록을 이용하여 간호과정의 연계를 확인한 논문 1편을 제외하였으며 2차 자료분석 연구는 연구대상자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생애 주기별 건강 연구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보고서의 생애주기 기준을 참고하여, 청소년기, 가임기, 임신 및 출산기, 폐경기, 노년기로 분류하였다[11]. 그 중 가임기와 임신 및 출산기 연령의 범위가 넓고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가임기는 대학생, 어머니, 일반 성인으로 하위 범주화 하였으며, 임신 및 출산기는 임신여성과 출산 및 출산 후 여성으로 하위 범주화 하였다. 한 편의 논문에서 여러 단계의 발달 단계를 포함하는 논문의 경우, 해당되는 모든 단계를 중복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 임신 여성과 출산 후 여성의 단계에 중복으로 표시하여 분류하였다. 생애주기별 외에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 연구를 파악해 보고자 전체 연구대상자 중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추가 분류하였다. 건강문제는 생식기계 질환과 산과 질환, 일반질환으로 재분류 하였다. 추가적으로 특정 대상자를 포함한 연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타 대상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양적 연구방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비실험연구와 실험연구에서의 대상자, 표본추출방법,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을 분석하였으며, 실험연구의 경우 중재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한 편의 연구에서 1개 이상의 표본추출방법,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분석방법을 사용한 경우 중복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분석방법은 기술통계와 동질성 검정을 제외하고 주요 변수 측정을 위하여 사용한 통계기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로 구분한 연구대상자, 연구방법, 분석방법, 연구 주제를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참고 문헌과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네러티브

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내용분석 연구와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추가하여 분류하였다[12,13].

주요어 분석은 이전의 여성간호학회지의 연구 동향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분석기준대로 인구학적 영역, 건강 관련 개념 영역, 건강행위 영역, 성 관련 영역, 질환 영역, 간호 관련 용어 영역, 생활사건 영역, 연구방법 영역, 치료적 행위 영역으로 총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6,7].

3. 자료분석

연구팀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논의를 통해 확정된 1차 분석 도구의 틀에 따라 자료를 분석한 후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통하여 총 7회에 걸쳐 분석틀을 수정하고 최종 확정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방법, 게재된 논문의 유형 및 연구의 이론적 기틀의 유무

최근 4년간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방법, 게재된 논문의 유형 및 연구의 이론적 및 개념적 기틀의 유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양적 연구는 83.8%(109편)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질적 연구는 13.1%(17편),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1.5%(2편), Q방법론 1.5%(2편)이었다. 양적 연구 중 비실험연구가 70.8%(92편)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실험연구설계가 13.1%(17편)이었다. 비실험연구방법 중 조사연구방법 52.3%(68편),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6.2%(8편), 방법론적 연구 5.4%(7편), 2차 분석 연구 5.4%(7편), 개념분석 연구 1.5%(2편)으로 나타났으며 전향적 코호트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없었다. 실험연구는 유사실험 설계가 11.5%(15편)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순수실험 연구는 1.5%(2편)에 불과하였다.

질적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6.9%(9편),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 연구가 2.3%(3편), 문화기술지 연구방법 연구가 1.5%(2편), 내용분석 연구가 1.5%(2편), 사례연구가 0.8%(1편)이었다. 게재된 논문의 유형으로는 비학위 논문이면서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이 44.7%(59편), 학위논문 34.8%(46편)이었으며 이 중 석사학위논문 29.5%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ies

(N=1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109 (83.8)
	Non-experimental design	92 (70.8)
	Survey	68 (52.3)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 meta-analysis	8 (6.2)
	Methodological	7 (5.4)
	Secondary analysis	7 (5.4)
	Concept analysis	2 (1.5)
	Experimental design	17 (13.1)
	Quasi-experimental	15 (11.5)
	True experimental	2 (1.5)
	Qualitative	17 (13.1)
	Phenomenological research	9 (6.9)
	Focus group interview	3 (2.3)
	Ethnography	2 (1.5)
Content analysis	2 (1.5)	
Case study	1 (0.8)	
	Mixed-method	2 (1.5)
	Q-methodology	2 (1.5)
Type of research (n=132) [†]	Thesis or dissertation	46 (34.8)
	Master	39 (29.5)
	Doctoral	7 (5.3)
	Funded research	27 (20.5)
	General research	59 (44.7)
Research framework	Yes	10 (7.7)
	No	120 (92.3)

[†] Multiple response.

(39편)이었고 박사학위 논문은 5.3%(7편)에 불과하였다. 한편, 정부 정책 연구 지원,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재단이나 교내 연구비수혜를 밝힌 논문이 20.5%(27편)이었다. 이 중 연구비수혜를 받은 석사학위 논문은 2편이었다. 총 130편 논문 중 이론적 및 개념적 기틀을 사용하여 수행한 연구는 7.7% (10편)이었다.

2.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총 8편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가 여러 단계의 생애주기 발달 단계에 걸쳐 있었다. 생애주기 및 여성건강 발달단계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어머니, 성인을 포함한 가임기 대상자를 포함한 논문이 62.8%(66편)로 가장 많았으며, 임신 및 출산, 출산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2%(40편), 이후 폐경기 9.6%(12편), 청소년 3.2%(4편), 노인 2.4%(3편) 순이었다. 가임기 여성 중 성인여성을 포함한

연구가 46%로 가장 많고, 임신 및 출산기 여성 중 임신 여성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18.4%).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포함한 연구는 39편이었는데 이 중에서 자궁적출술, 불임, 유방암, 월경 전 증후군, 부인암, 부인과수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포함한 생식기계 질환자 대상이 71.8%(28편)로 가장 많았고, 조기진통,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을 포함한 고위험 임부와 관련된 연구가 15.4%(6편), 일반 암, 과민성 장 증후군, 말초신경병증이나 과민성 방광 증후군과 같은 기타 질환이 12.8%(5편)이었다.

기타 특정 대상자를 연구참여자로 하고 있는 19편의 논문 중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6.8%(7편)로 가장 많았으며, 특정 직업군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7편, 배우자를 포함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논문이 3편,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 1편, 간호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편이 있었다.

Table 2. Analysis of Research Subjects

(N=117)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ubgroup n (%)	
Life span (n=125) [†]	Adolescence (Age 13~18)	High school girls	3 (2.4)	4 (3.2)	
		Middle & high school girls	1 (0.8)		
	Childbearing (Age 19~44)	College students	Female college students	4 (3.2)	14 (11.2)
			College students (men & women)	3 (2.4)	
			Nursing students (women)	2 (1.6)	
			Nursing students (men & women)	5 (4.0)	
		Mother	Mother	7 (5.6)	7 (5.6)
		Adult	Unmarried women (20~49)	4 (3.2)	45 (46.0)
			Married women	10 (8.0)	
			Adult women	27 (21.6)	
			Adult (men & women)	4 (3.2)	
		Pregnancy & postpartum (Age 19~44)	Pregnancy women	Pregnancy women	21 (16.8)
	Pregnancy couple			2 (1.6)	
	Intra & Postpartum women		Postpartum	15 (12.0)	17 (13.6)
			Women with labor	2 (1.6)	
Menopause (Age 45~64)	Menopausal women		7 (5.6)	12 (9.6)	
	Middle aged women	5 (4.0)			
Women who have disease (n=39)	Women who have reproductive disease	Hysterectomy	6 (15.4)	28 (71.8)	
		Infertile	6 (15.4)		
		Breast cancer	4 (10.3)		
		Premenstrual syndrome	4 (10.3)		
		Gynecologic cancer	3 (7.7)		
		Gynecologic surgery	3 (7.7)		
		Polycystic ovary syndrome	2 (5.1)		
	Women who have high risk pregnancy	Preterm labor	4 (10.3)	6 (15.4)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1 (2.6)		
		Other high risk	1 (2.6)		
	Women who have general disease	General cancer	2 (5.1)	5 (12.8)	
		Irritable bowel syndrome	1 (2.6)		
		Peripheral neuropathy	1 (2.6)		
		Overactive bladder syndrome	1 (2.6)		
	Others (n=19)		Immigrant women	7 (36.8)	
Nurses			7 (36.8)		
Couple			3 (15.8)		
Spouse			1 (5.3)		
Nursing professor			1 (5.3)		

[†] Multiple response.

3. 양적 연구의 특성

비실험연구, 실험연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양적 연구의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비실험연구에서 생애주기 단계별로 대상자는 가임기 여성이 48.8%(42편)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임신 및 출산기 여성 32편(37.2%), 폐경기 여성이 8.1%(7편), 청소년이 3.5%(3편), 노년기 여성이 2.3%(2편)이었다. 실험연구에서는 가임기 여성이 76.5%(13편)이었고,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비실험연구와 실험연구 모두에서

Table 3. Analysis of Quantitative Study

(N=10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n-experimental design (n=92)	Experimental design (n=17)
		n (%)	n (%)
Subjects (Non-experimental design n=125) [†] (Experimental design n=29) [†]	Life span	86 (100.0)	17 (100.0)
	Adolescence	3 (3.5)	-
	Childbearing	42 (48.8)	13 (76.5)
	Pregnancy/Postpartum	32 (37.2)	3 (17.6)
	Menopause	7 (8.1)	1 (5.9)
	Elderly	2 (2.3)	-
	Women who have disease	26 (100.0)	11 (100.0)
	Reproductive disease	17 (65.4)	9 (81.8)
	High risk pregnancy	4 (15.4)	2 (18.2)
	General disease	5 (19.2)	-
	Others	13 (100.0)	1 (100.0)
	Immigrant women	5 (38.5)	1 (100.0)
	Spouse	4 (30.8)	-
Nurses	3 (23.1)	-	
Nursing professor	1 (7.7)	-	
Sampling (n=97) [†]	Convenience	67 (69.1)	15 (88.2)
	Online survey	7 (7.2)	-
	Random sampling	2 (2.1)	2 (11.8)
	Cluster	1 (1.0)	-
	Quota	1 (1.0)	-
	Others	19 (19.6)	-
	Data collection (Non-experimental design n=100) [†] (Experimental design n=26) [†]	Questionnaire	71 (71.0)
Literature review		12 (12.0)	-
Secondary analysis		7 (7.0)	-
Observation		6 (6.0)	3 (11.5)
Physiologic measure		2 (2.0)	6 (23.1)
Interview		2 (2.0)	-
Data analysis (Non-experimental design n=224) [†] (Experimental design n=29) [†]	t-test (including paired t-test)	57 (25.4)	20 (68.9)
	ANOVA/ ANCOVA	53 (23.6)	6 (20.7)
	Correlation	52 (23.2)	-
	Regression	31 (13.8)	-
	χ^2	17 (7.6)	3 (10.3)
	Logistic regression	9 (4.0)	-
	Factor analysis	5 (2.2)	-
Intervention type	Education		8 (67.0)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6 (35.3)
	Web/ mobile program		2 (11.8)
	Medical intervention		1 (5.9)

[†] Multiple response.

생식기계 질환자 대상 연구가 각각 63.34%(17편), 81.8%(9편)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질환자 대상으로 연구한 실험연구는 없었다. 비실험연구는 기타 특정 대상자인 이민여성, 배우자, 부부, 간호계 직종 종사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실험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 1편만 확인되었다.

표본추출방법은 대상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중복 표시하여 분류였으며, 비실험연구에서 임의 추출이 69.1

%(67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이용한 경우가 7.2%(7편), 무작위 추출이 2.1%(2편), 19.6%(19편)의 논문에서는 개념분석, 2차 분석 및 문헌분석 연구를 포함한 기타 자료수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연구에서도 임의 추출방법이 88.2%(15편)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무작위 추출 방법이 11.8%(2건)이었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실험연구와 비실험연구 모두에서 질문지 방법이 71.0%(각 71편), 65.4%

Table 4.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Study

(N=17)

Subjects	Method	Analysis	Research Theme	
Childbearing (n=4)	Working mother	Phenomenological	Colaizzi	Experience in parenting burden
	Mother	Ethnography	Ethnographic analysis	Mother's adaptation to caring for children with cancer
	Infertility women	Focus group interview	Content analysis	The perception of national programs for infertility support
	Married women	Phenomenological	Colaizzi	Experiences in spontaneous abortion
Pregnancy & postpartum (n=5)	Women with labor	Phenomenological	Psychophenomenological	Experience of natural childbirth at midwifery clinics or home
	Postpartum women	Focus group interview	Content analysis	Experiences of Sanhujori facility use in Korea
	Postpartum women	multiple-case design	Content analysis	Expert breast massage experience
	Immigrant women	Ethnography	Ethnographic analysis	Korean immigrant women's Taekyo in US
	Immigrant women	Focus group interview	Content analysis	First birth experience of Chinese immigrants in Korea
Menopause (n=2)	Middle aged women	Phenomenological	Colaizzi	Experience of aging
	Middle aged women	Phenomenological	Giorgi	Experiences of divorce
Elderly (n=1)	Elderly women	Content analysis	Content analysis	Depression of low income elderly
Others (n=5)	Nurses	Phenomenological	Colaizzi	Experience of burnout
	Nurses	Phenomenological	Colaizzi	Caring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woman with disabilities
	Delivery room nurses	Phenomenological	Colaizzi	Work experiences in delivery room
	Delivery room nurses	Content analysis	Content analysis	Caring for stillborn babies and their parents
	Nursing students	Phenomenological	Colaizzi	Practice experiences in midwifery clinic

(17편)으로 제일 높은 빈도를 보였다. 비실험연구에서는 생리적 측정방법이 2.0%(2편)인 반면 실험연구 중 23.1%(6편)에서 생리적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을 분석한 결과, 비실험연구에서 t-검정이 25.4%(57편), ANOVA/ANCOVA 분석이 23.6%(53편), 피어슨 및 스피어만 상관관계수 분석이 23.2%(52편), 회귀분석(단순, 다중, 위계적)이 13.8%(31편), 카이제곱 검정이 7.6%(17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4%(9편), 요인 분석이 2.2%(5편) 순서로 많이 사용되었다. 실험연구에서는 t-검정이 68.9%(20편), ANOVA/ANCOVA 분석이 20.7%(6편), 카이제곱 검정이 10.3%(3편) 순서로 많이 사용되었다.

실험연구에서 사용된 중재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간호학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중재가 67%(8편)로 가장 많았으며 보완대체요법이 35.3%(6편)이었다.

4. 질적 연구의 특성

질적 연구의 특성을 기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연구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편, 임신 및 출산 후 여성이 5편, 폐경기 여성이 2편, 노인여성이 1편이었고,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이었다.

질적 연구방법별로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현상학적 연구에서 Colaizzi 분석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7편으로 가장 많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내용분석방법으로, 문화기술지 연구는 모두 문화기술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제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의 양육부담, 암환자 어머니의 적응, 국가 난임 사업의 지원 인식, 기혼여성 중 자연유산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임신 및 산후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의 주제로는 조산원과 가정에서 분만한 여성의 자연분만 경험,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 유방 마사지 경험,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여성의 태교경험,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이민여성의 출산경험이 있었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나이 들에 대한 경험, 이혼 후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저소득층 여성노

인의 우울 경험에 대해 이루어졌다.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소진경험, 장애를 가진 여성의 출산 돌봄 경험, 분만실 간호사의 경험, 사산모의 돌봄 경험이 있었고, 조산원 분만 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5. 주요어 분석

주요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9개 영역 중 건강 관련 개념 영역이 41%(217개)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인구학적 영역 17.4%(92개), 건강행위 영역 11.2%(59개), 연구방법 영역 7%(37개), 생활사건 영역 6.8%(36개), 질환 영역 5.7%(30개), 간호 관련 용어 영역 4.3%(23개), 성 관련 영역 3.4%(18개), 치료적 행위 영역이 3.2%(17개) 순으로 나타났다. 높은 빈도를 보인 건강 관련 개념, 인구학적, 건강행위 영역에 있는 주요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강 관련 개념 영역

건강 관련 개념 영역 중 사회심리적 건강개념이 128개로 가장 많았으며, 생리적 건강개념이 57개, 일반적인 건강개념이 32개를 차지하였다. 사회심리 영역에는 우울이 13회, 삶의 질이 12회, 스트레스가 11회, 불안이 8회, 경험과 사회적 지지가 각 4회, 적응, 정체감, 산후우울, 자기효능감이 각 3회로 자주 언급되었다. 생리적 건강개념에서는 통증이 4회, 피로, 월경, 조기진통, 수면이 각 3회, 나이 들어감, 수술 후 오심 구토가 각 2회 언급되었다. 일반적인 건강개념에는 지식이 7회, 태도가 5회, 인식과 행위가 각 3회 사용되었다.

2) 인구학적 영역

인구학적 영역의 주요어는 92개 중에서 여성이 57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학생이 11회, 간호사가 8회, 환자가 5회 사용되었다. 여성과 관련된 용어 중에는 여성이 15회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임신여성이 9회, 어머니가 7회, 이민 및 이주자 관련 용어가 7회, 중년여성과 노화가 각 4회 사용되었다. 학생 관련 주요어로는 간호학생이 4회 여성 청소년이 3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3) 건강행위 영역

건강행위 영역은 59개 중 교육이 14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교육과 산전교육이 3회 사용되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행위가 11회 사용되었는데 피임, 질세척, 손씻기가 각 2회 언급되었다. 건강증진행위와 보완 대체 요법과 관련된 주요

어는 각 10회 사용되었으며, 수태 전 건강관리가 3회, 아로마 요법과, 마사지가 각 2회 제시되었다. 이 밖에 모유수유가 8회 사용되었다.

4) 기타 연구영역

기타 영역에 포함된 주요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 관련 영역에 있어서 언급된 주요어 18개 중 성(gender)이 3회, 성적 자기주장, 성행동, 성 기능, 성적 만족이 각 2회 사용되었다. 질환 영역에서는 30개가 주요어로 사용되었으며 종양과 관련된 용어로 유방종양, 부인과 종양이 각 3회 언급되었으며 생식 관련 용어 중에는 난임과 월경진 증후군이 3회, 일반적인 질환 관련 용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2회 사용되었다. 간호 관련 용어 영역은 23개의 주요어가 사용되었으며, 간호와 출산 후 관리, 산전관리가 각 3회 제시되었다. 생활사건 영역에서는 36개의 주요어가 사용되었으며 임신이 10회, 폐경과 산욕기가 각 4회 언급되었다. 연구방법 영역에 37개의 주요어가 사용되었고 이 중 질적 연구가 10회, 중재연구가 4회, 사용되었다. 치료적 행위 영역에는 17개의 주요어가 사용되었는데 자궁 절제술이 4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4년간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방법과 게재된 논문의 유형 및 이론적 기틀의 유무, 연구대상자의 특성,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의 특성, 주요어를 분석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분석한 논문의 결과와 비교하고, 2013년 한국여성 건강통계에서 제시한 여성건강 이슈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앞으로 여성건강간호를 위한 연구의 나아갈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 논문분석연구와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분석에 포함된 질적 연구는 13.1%로 선행 논문 분석 연구에서 게재된 질적 연구 8.2% 보다 증가하였다. 반면에 양적 연구 중 조사연구는 52.3%로 선행연구 70.6%의 조사 연구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연구는 13.1%로 이전의 선행 논문분석 23.5%의 실험연구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기존에 게재되었던 실험연구가 모두 유사실험연구였던 것에 비해 본 논문 분석에서는 순수실험연구가 2편 게재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건강에 대한 근거기반 간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수실험연구가 앞으로 더욱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사연구, 실험연

Table 5. Research Domain by Key Words

(N=529)

Domain	Topic	Key word (n)
Demographic (n=92)	Women (n=57)	women [†] (15), pregnant women [†] (9), mother [†] (7), middle aged women (4), aged [†] (4), immigrants (4), emigrants and immigrants [†] (3), maternal age [†] (3), married immigrant women (1), high risk pregnant women (1), infertile women (1), nulliparous women (1), single person [†] (1), unmarried (1), woman with disability (1), working mother (1)
	Student (n=11)	nursing student (4), female adolescent (3), adolescence (1), college student (1), students [†] (1), university students (1)
	Patient (n=5)	patient [†] (2), breast cancer survivors (1), inpatient (1), survivors [†] (1)
	Nurse (n=8)	nurse (6), midwifery [†] (1), nurse midwife (1)
	Others (n=11)	gynecology [†] (2), premature infant (2), spouse (2), gynecology department (1), sanhujori facilities (1), parents [†] (1), twins [†] (1), young children (1)
Health behavior (n=59)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n=10)	aroma therapy [†] (2), massage [†] (2), alternative medicine (1), aroma inhalation (1), complementary medicine (1), light [†] (1), music therapy [†] (1), therapy [†] (1)
	Preventive behavior from disease (n=11)	contraception [†] (2), douching (2), hand washing (2), early detection of cancer [†] (1), feminine hygiene (1), papilloma virus vaccines [†] (1), pap smears (1), vaccination [†] (1)
	Exercise (n=2)	activity (2)
	Education (n=14)	education [†] (3), prenatal education [†] (3), health education [†] (1), internet [†] (1), mobile application (1), multilingualism (1), multimedia [†] (1), patient simulation [†] (1), simulation (1), supplementary material (1)
	Health promoting behavior (n=10)	preconception care [†] (3), health related behavior (1), intervention program (1), lifestyle modification (1), oral health [†] (1), personal hygiene (1), self care [†] (1), food habits (1)
	Breast-feeding (n=8)	breast feeding [†] (6), techniques (1), human milk (1)
	Childbirth (n=3)	natural childbirth (2), amily practice [†] (1)
	Politics (n=1)	government programs [†] (1)
Health related concept (n=217)	General (n=32)	knowledge [†] (7), attitude [†] (5), awareness [†] (3), behavior [†] (3), cognition [†] (2), health status [†] (2), reproductive health [†] (2), effectiveness (1), health [†] (1), health behavior [†] (1), intention [†] (1), life [†] (1), life cycle (1), motivation [†] (1), practice (1)
	Physiologic (n=57)	pain [†] (4), fatigue [†] (3), menstruation [†] (3), preterm labor (3), sleep [†] (3), aging [†] (2),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 (2), abortion (1), autonomic nervous system [†] (1), body (1), body mass index [†] (1), bone health (1), bone mineral density (1), breast [†] (1), cardiology [†] (1), cytokines [†] (1), dehydration [†] (1), drinking [†] (1), glucocorticoid (1), immune function (1), immunologic factors [†] (1), insomnia (1), malnutrition [†] (1), nutrition (1), menstrual cycle [†] (1), musculoskeletal system [†] (1), nausea [†] (1), obesity [†] (1), overweight [†] (1), postoperative complications [†] (1), postoperative pain (1), premature labor (1), psycho neuro immunology (1), sleep disorders (1), smoking [†] (1), sodium [†] (1), stillbirth [†] (1), stress inflammation (1), symptom (1), symptom assessment [†] (1), urine [†] (1), uterine contraction [†] (1), vaginal bleeding (1), weight loss [†] (1)
	Psychosocial (n=128)	depression [†] (13), quality of life [†] (12), stress (11), anxiety [†] (8), experience (4), social support [†] (4), adaptation (3), identity (3), postpartum depression (3), self efficacy [†] (3), burnout (2), happiness [†] (2), infant care [†] (2), marital intimacy (2), perception (2), personal satisfaction [†] (2), satisfaction (2), self-esteem (2), uncertainty [†] (2), acculturation [†] (1), adaptive behavior (1), adjustment (1), anger [†] (1), attachment (1), caring (1), competence (1), coping (1), cultural competence (1), culturally competent care [†] (1), emotion (1), emotional clarity (1), expectation (1), family strength (1), fetal relation (1), health inequality (1), health promotion [†] (1),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1), maternal (1), maternal relationship (1), maternal identity (1), maternal fetal attachment (1), maternal-fetal relations [†] (1), maternal role development (1), menstrual attitude (1), mood (1), mother infant attachment (1), parent child communication (1), parenting [†] (1), parenting burden (1), patient satisfaction [†] (1), perfection (1), physiological stress (1), poverty [†] (1), premenstrual coping (1), premenstrual distress (1), problem behavior [†] (1), problem solving [†] (1), psychological stress (1), psychometrics [†] (1), psychosocial factors (1), resilience (1), role [†] (1), suicide [†] (1), turnover (1), weight perception [†] (1)
Sex related concept (n=18)	Sex (n=14)	sexual assertiveness (2), sexual behavior [†] (2), sexual function (2), sexual satisfaction (2), assertiveness [†] (1), sex (1), sexual distress (1), sexual harassment [†] (1), sexual health [†] (1), sexuality [†] (1)
	Gender (n=4)	gender (3), gender identity [†] (1)

[†] MeSH term.

Table 5. Research Domain by Key Words (Continued)

(N=529)

Domain	Topic	Key word (n)
Disease (n=30)	Neoplasm (n=14)	breast neoplasms [†] (3), gynecologic neoplasm (3), cancer (2), cervical cancer (2), breast cancer (1), human papilloma virus (1), neoplasm (1), uterine cervical neoplasms [†] (1)
	Reproductive (n=9)	infertility [†] (3), premenstrual syndrome [†] (3), polycystic ovary syndrome [†] (2),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1)
	General (n=7)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2), chemotherapy 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1), irritable bowel syndrome [†] (1), metabolic syndrome X (1), overactive bladder (1), periodontal diseases [†] (1)
Nursing related concept (n=23)		nursing [†] (3), postnatal care [†] (3), prenatal care [†] (3), maternity nursing (2), women's health [†] (2), needs assessment [†] (1), nursing needs (1), nursing process [†] (1), nursing research [†] (1), postpartum care (1), sanhujori (1), assessment of healthcare needs (1), clinical competence [†] (1), delivery room (1), flipped learning (1)
Life event (n=36)		pregnancy [†] (10), menopause [†] (4), postpartum period [†] (4), marriage [†] (3), postpartum (3), middle aged [†] (2), childbirth (1), climacteric [†] (1), delivery (1), divorce [†] (1), emigration and immigration [†] (1), immigration (1), labor (1), obstetric delivery (1), postmenopause [†] (1), postnatal (1)
Research method (n=37)		qualitative research [†] (10), intervention studies (4), concept analysis (2), focus groups [†] (2), guideline [†] (2), meta-analysis [†] (1), phenomenological study (1), q methodology (1), quality of reporting (1), reliability (1), research design [†] (1), review [†] (1), review literature (1), scale of maternal fetal attachment (1), scales (1), STROBE (1), summary statement (1), systematic review (1), triangulation (1), validity (1), validity and reliability (1), cross sectional design (1)
Therapeutic medical intervention (n=17)		hysterectomy [†] (4), gynecological surgery (2), antibiotics (1), antineoplastic agents [†] (1),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s (1), chemotherapy (1), electronic fetal monitoring (1), injection (1), laparoscopic supra cervical hysterectomy (1), laparoscopic surgery (1), local anesthesia (1),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1), remifentanyl [†] (1)

[†]MeSH term.

구가 줄어든 반면 방법론적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 및 개념분석 등 연구방법이 이전보다 다양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 학위논문 연구의 게재가 이전 분석 시에 포함되었던 3편에 비해 매우 급증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석사 학위논문이 많았는데 이는 간호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과거에 비해 대학원 진학을 많이 하고 이에 따라 간호 연구자가 많아졌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 논문은 7.7%(10편)에 불과하여 여전히 이론적 기틀에 근거한 연구가 부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13]에서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과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대상자와 간호 현상들을 간호이론에 적용하여 검증하거나, 이들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개념 및 이론개발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적 지식체 축적을 통한 간호학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간호이론을 적용한 연구 수행이 장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연구대상자 분석에 대한 고찰이다. 선행연구 [7]에서는 대상자를 발달단계와 질환별로 분류하였을 때, 임신 및 출산 여성이 2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는 본 연구에서의 분류기준과 달라 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임기, 임신 및 출산기, 폐경기, 노인기로 나눈 생애주기별 단계 중에서 대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성인여성을 포함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연구가 62.8%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전의 임신 및

출산 여성 중심의 연구에서 가임기 여성 대상으로 대상자가 확장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미숙아출산, 조기분만 및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미혼으로 인한 고령 임부의 증가로 난임, 미숙아출산, 고위험 임신 등이 많아진 한국여성의 건강문제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생애주기별 연구대상자의 분포를 봤을 때 중고생을 포함한 청소년과 노인 대상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관계 연령이 점점 빨라지는 반면 낮은 피임 실천으로 인한 낙태 및 출산 등 청소년의 성생활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흡연 및 음주와 같은 건강행태의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 [14-16]. 또한 노인여성의 경우 우울증, 만성질환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17].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과 노인 여성의 건강 관련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고연령 미혼여성도 많아지는 사회현상에 맞추어 비임신과 비출산으로 인해 여성건강 대상자에서 소외될 수 있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인하여 이주여성 관련 연구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출산 및 양육과정 중에 겪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제였으며, 이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많아짐에 따라 간호사의 문화역량에 대한 개념분석이 이루어지는 등 다문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다.

양적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실험

연구의 대상자는 임부, 수술 환자, 간호학생 등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자궁적출술 환자 대상으로 향기요법, 구조화된 정보제공, 동영상 교육을 주로 수행하였다. 이렇게 대부분의 중재 장소가 병원 및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질병이 없는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중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재의 종류는 교육이 가장 많았는데 이전 연구분석에서 해마다 모유수유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으나 이번 논문 분석에서는 모유수유에 대한 중재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었다. 대신 난임, 조기진통 임부와 같이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한 중재연구가 수행되어 고위험 임부에 대한 간호학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중재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기혼여성이나 임부를 대상으로 중재를 할 경우 중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배우자 또는 파트너를 중재에 포함하는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8,19]. 대상자 모집은 이전과 동일하게 편의추출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설문지 조사가 여전히 주로 이용되고 있었다. 생리적 지표를 이용한 연구는 6.4%로 2007부터 2009년까지 여성건강학회지에 게재되었던 생리적 지표를 사용한 연구 수에 비해 약 4%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여성건강학회지를 포함한 국내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간호연구 중 생리적 지표를 이용한 연구의 분포는 5.1%로 나타나 전체 간호학 분야의 연구에서 생리적 지표를 이용한 자료수집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0]. 생물학적 측정은 기타 다른 측정방법에 비해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특징이므로 간호연구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연구의 타당도를 증가시키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측정을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21]. 따라서 여성건강간호학 연구에서도 객관적 자료수집을 위하여 생리적 지표를 이용한 자료수집이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질적 연구 분석에 대한 고찰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질적 연구의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양적 연구에서 측정하지 못하는 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질적 연구가 꾸준히 게재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질적 연구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고, 그 중에서도 거의 Colaizzi 분석방법으로 자료분석을 하였으며 그 밖에 내용 분석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풍부한 결과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최근에는 질적연구의 방법 중 한 종류인 근거이론 연구가 게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근거이론의 목적은 어떤 현상

에 대한 과정 또는 행동의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간호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접근방법이다. 복합적인 간호현상의 의미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근거이론을 포함한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분석에 포함된 질적 연구의 대상자 중에 간호사 및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경우가 29.4%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간호현상 및 간호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여성건강 교육과 실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생애 주기별 연구대상자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는 없었으므로 앞으로 여성건강 연구자는 청소년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과 청소년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청소년들의 경험이나 현상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지난 4년간 논문에 포함된 주요어 분석에 대한 고찰이다. 총 9개 영역별 중 주요어 빈도의 순위는 건강 관련 개념 영역, 인구학적 영역, 건강행위 영역, 연구방법 영역, 생활사건 영역, 질환 영역, 간호 관련 용어 영역, 성 관련 영역, 치료적 행위 영역으로 나열할 수 있고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는 건강 관련개념 영역으로 그 중 심리사회적 건강개념에 해당되는 주요어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단, 연구방법 영역의 주요어는 선행연구에서 3.8%를 차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구방법이 이전에 비해 다양해진 결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성 관련 영역의 주요어는 본 논문분석에서 3.4%로 선행연구의 5.9%에 비해 감소하였다. 성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주요어 영역 외에 세부 주요어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여성이 여전히 최다 주요어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존 여성 건강 간호 연구의 주요어였던 우울, 스트레스, 삶의 질의 빈도도 마찬가지로 10회 이상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심리 정서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적 연구의 사용 빈도가 5배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는데 이는 질적 연구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주요어 중 새롭게 제시된 주요어를 통해 최신 여성건강의 현황과 연구방향에 대해 유추할 수 있었다. 정부지원사업, 산모연령, 고위험 임신부, 쌍태아는 현재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도입, 고연령 임신, 난임 등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현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기존의 여성건강 연구에서 다루었던 우울, 스트레스, 불안 외에 새롭게 추가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이번 논문분석에서는 유방

암 여성과 난임 여성의 PTSD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암과 난임 등 여성의 신체적 문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통해 이와 관련된 심리 간호중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새로 등장한 주요어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멀티미디어가 있었는데 이는 모바일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등 최신의 간호중재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새로 추가된 개념 중 성적자기주장은 성폭행, 성추행, 데이트 폭력 등 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롭게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분석의 주요어 중 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용어의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총 529개 중 304개 (57.5%)는 맞게 사용되었으며 42.5%는 맞지 않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2007부터 2009년 게재된 논문분석의 결과인 26.5%의 불일치도보다 16% 상승된 결과이다. 이전 논문분석 연구에서 꾸준히 주요어의 MeSH 불일치에 대한 지적이 언급되고 있고, 여성건강간호학회지 투고규정이 MeSH 용어 사용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저자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이민자의 MeSH 용어는 emigrants and immigrants이지만 immigrants도 사용되고 있었으며, 미혼인 경우 single person이 MeSH 용어이나 unmarried로 사용한 저자도 있었다. 이처럼 저자마다 다른 주요어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1회씩 사용된 주요어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주요어는 최적의 논문을 검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표현하고자 하는 주요어를 국제 검색기준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키워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연구자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2013년 발표된 한국여성 건강통계 결과가 현재 여성건강 관련 연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이었다. 대상자별 연구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주요개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통해 각각의 대상자별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여성 건강통계에서 청소년의 증가된 성경험과 성 건강문제, 성교육의 부재를 제기하였으나 현재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연구는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연구만 1편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및 사망률은 고령 산모보다 높기 때문에 국외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에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생식건강의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체 및 심리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생식건강 간호중재를 도전과제로 삼고 있다[22]. 따라서 국내에서도 앞으로 청소년 임신 및 생식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여성건강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특히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경험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를 통한 청소년

년의 성 관련 경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신 및 출산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주요 개념인 스트레스, 산전간호, 산후 간호나 불임, 우울은 한국여성 건강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고령출산의 증가가 연구의 흐름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고령출산과 더불어 난임 및 고위험 임부가 많아지면서 건강한 출산 뿐 아니라 여성의 불안 및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문제가 점점 중요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외의 난임치료를 받는 부부를 위한 심리사회적 중재의 효과가 증명됨에 따라[23] 앞으로 고령 임부와 난임 여성을 위한 사정도구 개발 및 중재를 위한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겠다. 폐경기와 노인여성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개념은 우울이었다. 이는 여성의 우울증 증가와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한 한국여성 건강통계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2013 한국여성 건강통계 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제언하고 있으나 아직 중년,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앞으로 중년 이후 여성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밖에도 2013 한국여성 건강통계를 통해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폭력에 대한 여성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음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실습 중 성희롱에 대한 연구는 1편으로 아직 폭력과 관련된 여성건강 연구는 취약한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임신 중 외상 경험은 태아의 발달 뿐 아니라 자녀와의 친밀감 저하와 자녀의 심리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24-26]. 따라서 국외에서는 임신 중 폭력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폭력을 당한 임신부를 위한 간호중재 등 폭력과 관련된 임신 여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27, 28]. 국내 여성의 폭력이 중요한 여성건강이슈로 대두되는 최근 경향에 맞추어 임신 여성은 물론 앞으로 국내 여성의 폭력과 관련된 심리중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2013 한국여성 건강통계 결과 국내 여성의 흡연 및 알코올 섭취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가임 여성의 흡연 및 폭음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미국의 여성건강 현황과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분석에 포함된 연구 중 음주와 흡연을 포함한 여성의 건강형태 비교에 대한 연구는 1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비롯하여 전생애주기에 걸친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앞서 언급한 여성의 신체활동 증진뿐 아니라 금주 및 금연 등 여성의 건강한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여성건강간호를 대표하는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가장 최근 논문을 분석하여 이전의 논문분석 결과와 비교하고 한국여성의 건강통계 결과를 현재 여성건강간호연구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 연구방법이 이전보다 다양해졌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분포는 이전의 논문분석과 비슷하였으나 청소년 및 노인 대상 연구는 더 수행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한국여성의 건강통계 결과에 따라 고령 및 난임 여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졌으나 청소년의 성 건강 문제, 흡연과 음주와 같은 건강행태, 폭력과 관련된 연구 및 여성의 신체활동 부족과 관련된 연구는 앞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분석은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만 분석하였으므로 국내 여성건강 연구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대한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한국모자보건학회지 등 국내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여성건강 관련 논문을 추가로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ORCID

Lee, Young Jin	https://orcid.org/0000-0003-2471-0325
Kim, Seo Yun	https://orcid.org/0000-0002-5514-9828
Kang, Saem Yi	https://orcid.org/0000-0003-0033-4628
Kang, Yoo Jeong	https://orcid.org/0000-0001-9216-4368
Jin, Lan	https://orcid.org/0000-0003-1939-2182
Jung, Hee Yoen	https://orcid.org/0000-0002-2987-5455
Kim, Hae Won	https://orcid.org/0000-0002-6730-1575

REFERENCES

1. Ma L.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second birth rates in South Korea.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2016;33(2): 173-195. <https://doi.org/10.1007/s12546-016-9166-z>
2. Lee SY, Hwang MJ. A trend analysis on non-married persons in accordance with educational attainment: Comparison between Gangnam and Gangbuk in Seoul areas. *Journal of Social Science*. 2014;25(1):15-34. <https://doi.org/10.16881/jss.2014.01.25.1.15>
3. Song MY, Lim WY, Kim J-I. Gender based health inequality and impacting factor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5;21(2):150-159. <https://doi.org/10.4069/kjwhn.2015.21.2.150>
4. Kim NS. Women's health indicators: A glance through women's health STATS and FACTS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 May;235:6-14.
5. Kim NS, Park EJ, Jun J, Choi JH, Kim MH, Kim SW, et al. Korean women's health statistic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Report No.: 2013E6300200. Sponsor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6. Kim JI, Park SM, Park HS, Chung CW, Ahn SH. Analysis of published papers and their keywords i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3-2006).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7;13(1):51-59.
7. Kim JI, Lee EH, Kang HS, Oh HE, Lee EJ, Jun EM, et al. Analysis of published papers by keywords and research methods i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7~2009).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0;16(3):307-316. <https://doi.org/10.4069/kjwhn.2010.16.3.307>
8. Kim M, Cheon S-H, Jun E-M, Kim S, Song J-E, Ahn S, et al. The quality of reporting of intervention studies i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KJWHN): Based on the TREND guideline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4; 19(4):306-317. <https://doi.org/10.4069/kjwhn.2013.19.4.306>
9. Kim S, Oh H-E, Song J-E, Kim M, Ahn S, Lee E-J, et al. Analysis of reports on observational studi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based on the STROBE guidelin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4;20(4):287-296. <https://doi.org/10.4069/kjwhn.2014.20.4.287>
10. Akhtar-Danesh N, Baumann A, Cordingley L. Q-methodology in nursing research: A promising method for the study of subjectivity.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008;30(6):759-773. <https://doi.org/10.1177/0193945907312979>
11. Cho HN, Choi E, Seo DH, Suh M, Lee H-Y, Park B, et al. The Korean study of women's health-related issues (K-Stori): Rationale and study design. *BMC Public Health*. 2017;17(1):609. <https://doi.org/10.1186/s12889-017-4531-1>
12. Creswell J.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Choi HS. et al, translator. Seoul: Hakjisa; 2010. 515 p.
13. Han NK, Kim S, Kim MS, Kim JG, Kim CH, Choi SH. Trend analysis of research in th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for 5 years (2010~2014): Focused on usage of nursing theori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5;27(5):527-536. <https://doi.org/10.7475/kjan.2015.27.5.527>
14. Lee Y. Daily smoking girls' tobacco use, health behaviors and family factors: Analysis of 2015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14(5): 377-384. <https://doi.org/10.14400/jdc.2016.14.5.377>
15. Lee J. Factors affecting contraceptive use among adolescent girls in South Korea.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7;23 (3):259-267. <https://doi.org/10.4094/chnr.2017.23.3.259>
16. Cho HC. A meta-analysis on the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alcohol use: From 1990 to 2012.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4;21(6):191-221.
17. Kim S-Y, Sok S.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in the

- older Korean women living alone. *Contemporary Nurse*. 2013; 44(1):111-119.
<https://doi.org/10.5172/conu.2013.44.1.111>
18. Carroll AJ, Baron SR, Carroll RA. Couple-based treatment for sexual problems following breast cancer: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Supportive Care in Cancer*. 2016;24(8): 3651-3659. <https://doi.org/10.1007/s00520-016-3218-y>
19. Ayebare E, Mwebaza E, Mwizerwa J, Namutebi E, Kinengyere AA, Smyth R. Interventions for male involvement in pregnancy and labour: A systematic review. *African Journal of Midwifery and Women's Health*. 2015;9(1):23-28.
<https://doi.org/10.12968/ajmw.2015.9.1.23>
20. Choe MA, Kim NC, Kim KM, Kim SJ, Park KS, Byeon YS, et al. Trends in nursing research in Korea: Research trends for studies published from the inaugural issue to 2010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nd the journals published by member societies under Kore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4;44(5):484-494.
<https://doi.org/10.4040/jkan.2014.44.5.484>
21. Choe M. Perspectives on bionursing scien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2012;9.
22. Morris JL, Rushwan H. Adolescent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The global challenges.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y & Obstetrics*. 2015;131(S1).
<https://doi.org/10.1016/j.ijgo.2015.02.006>
23. Frederiksen Y, Farver-Vestergaard I, Skovgård NG, Ingerslev HJ, Zachariae R. Efficacy of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psychological and pregnancy outcomes in infertile women and me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MJ open*. 2015; 5(1):e006592. <https://doi.org/10.1136/bmjopen-2014-006592>
24. Yehuda R, Meaney MJ. Relevance of psychological symptoms in pregnancy to intergenerational effects of preconception trauma. *Biological Psychiatry*. 2018;83(2):94-96.
<https://doi.org/10.1016/j.biopsych.2017.10.027>
25. Seng JS, Sperlich M, Low LK, Ronis DL, Muzik M, Liberzon I. Childhood abuse history,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ostpartum mental health, and bonding: A prospective cohort study. *Journal of Midwifery & Women's Health*. 2013;58(1): 57-68. <https://doi.org/10.1111/j.1542-2011.2012.00237.x>
26. Jackson KT, Mantler T. Examining the impac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related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antenatal, intrapartum and postpartum women: A scoping review. *Journal of Family Violence*. 2017;32(1):25-38.
<https://doi.org/10.1007/s10896-016-9849-4>
27. Halim N, Beard J, Mesic A, Patel A, Henderson D, Hibberd P. Intimate partner violence during pregnancy and perinatal mental disorders in low and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of literature, 1990-2017.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17.
<https://doi.org/10.1016/j.cpr.2017.11.004>
28. Hatcher AM, Woollett N, Pallitto CC, Garcia-Moreno C. A conceptual framework and intervention approach for address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pregnancy: The safe & sound model in South Africa. *Global Perspectives on Women'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cross the Lifecourse*: Springer; 2018. p. 233-253.
https://doi.org/10.1007/978-3-319-60417-6_14
29. Tan CH, Denny CH, Cheal NE, Sniezek JE, Kanny D. Alcohol use and binge drinking among women of childbearing age- United States, 2011-2013. *MMWR Morb Mortal Wkly Rep*. 2015;64(37):1042-1046.
<https://doi.org/10.15585/mmwr.mm6437a3>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Research related to domestic women's health has been analyzed to identify research trends.

■ **What this paper adds?**

This study confirmed that recent Korean women's health-related research reflected results of the 2013 Korean Women's Health Statistic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o effectively promote women's health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pply various research methods to areas that further research is needed.